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한시생활비 지급

고창군이 오는 21일부터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한시생활비를 '높을 고창 카드'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원대상자 4280가구에 대해 카드지원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고창읍의 경우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읍내 지역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일정에 따라 배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약류 불법재배 특별단속

부안군은 불법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집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빈집정비 본격

정읍시가 올해 1억 4백만 원을 들여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태관광 활성화

월영습지·솔티숲 일원 전국적인 생태관광지 집중 육성

2024년까지 73억원 들여 역사·문화·자연코스 관광지로

정읍시가 지역의 생태 가치 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대표 지점이 월영습지와 솔티숲 일원이다.

솔티숲은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 자락의 솔티마을 숲이다. 월영습지는 솔티숲과 연결하고 있는 습지로 2014년에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솔티숲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원시숲으로 형성되어 있고 월영습지는 4곳의 습지로 구성되어 산 능선에 있던 산골 마을이 습지로 천이되어가는 자연의 역사를 담고 있다.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진노랑사슴과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시는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꾀할 100년 대계로 보고 2024년까지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의 첫 관문인 내장생태탐방마루길을 조각공원 인근에 조성해 내장호와 내장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경조망의 명소를 만들었고,솔티숲과 솔티마을을 잇는 솔티숲 옛길을 복원 완료했다. 또, 월영습지 탐방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월영마을에서 월영습지까지 약 1km의 자연탐방로를 개선해 기존에 1시간 이상 급경사를 올라야 했던 등산로를 20분만 걸으면 월영습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솔티숲 생태체험장과 생태관광지 인근에 내장산생태탐방원도 조성해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솔티숲



정읍시가 지역의 생태 가치 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영습지와 솔티숲 일원에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생태체험장에는 보타닉원정대와 예코 버딩과 같은 전문 생태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린이를 위한 생태 놀이터, 성인을 위한 토박이에 공예작품인 풍경과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는 명상터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탐방객을 위한 방문자 지원센터 건립도 계획·추진 중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자연자원을 전시·교육·홍보하고 탐방객에게는 생태 체험과 마을 생태 탐상 체험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생태관광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성숙된 생태관광지로 가기 위해 생태적인 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과 시가 협력해 양서류 로드킬 보호 활동과 산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양서류 생태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생태적 가치와 보전·이용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읍 월영습지와 공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간계획은 추후에 이어질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설치, 생태관광 활동 등에 있어 보호·보전·이용의 공간적 기준으로 삼아 생태 개발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

솔티마을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자부심과 활동·노력도 눈에 띈다. 주민 주도로 2016년 전국 생태관광 축제, 2018년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 2019년 생태관광 네트워크 축제를 개최했고, 매년 솔티모시 마을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생태관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도적 생태관광 활동이 높이 평가받아 2018년 전국에서 20번째로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다양한 공익기능을 위해 14억9600만원을 들여 숲가꾸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푸른 숲가꾸기사업 본격

덩굴·풀·잡목 제거 등

고창군이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다양한 공익기능을 위해 14억9600만원을 들여 숲가꾸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조림지가꾸기(덩굴제거, 풀베기) 60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200ha로 총 900ha 산림을 관리할 예정이다.

조림지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지를 중심으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 풀,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우량한 경제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공림과 천연림에 큰나무가꾸기

를 추진해 산림기능에 맞게 경영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나간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과 생활권 주변 등에 100ha 규모의 공익림가꾸기를 시행해 대기 오염물질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동경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장은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쏠고 굵게 자라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란다"며 "쾌적한 공기 질 향상과 경관 개선 등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고창의 산림을 더욱 푸르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꼼짝마'

정읍시, 양돈농가 차단 방역... 24일까지 울타리 설치 수요조사

정읍시는 경기·강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 등으로 지역 내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차단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야생멧돼지가 번식기를 맞아 4월부터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야생동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울타리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와 미설치 농가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차후 사업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양돈농가에 차단 방역 조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농장 내·외부 철저한 청소 및 소독 ▲야생조수, 쥐, 파리 등 매개체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피제, 구사제, 구충제 적극 사용 ▲차량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설치 ▲농장 울타리 설치 ▲퇴비사 폐사체 방치않기 ▲퇴비장 방충망 설치 ▲돈사 틈새 차단 ▲전실,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생석회 도포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 교육 철저 등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욱 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장 단위 차단 방역 운영에 모든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 시행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 원스톱 처리로 군민불편 해소

부안군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사용승인시 지적부서와 건축부서의 협업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목변경을 하게 돼 민원인은 기존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지

목변경 신청을 위해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줄게 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도 일제조사 후 정리해 지금까지 총 416필지 35만 5134㎡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해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로 군민불편을 해소해 왔다.

이와 함께 군은 지적민원 원스톱 처

리제를 통해 토지분할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 민원인이 5년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측량·개발행위 허가·분할·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전년도에는 535건을 처리 완료하는 등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세를 군 민원과장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가 주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토지현황 일치로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